

히브리 12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12:1** 이 러 므 로 우 리 에 게 구 름 같 이 돌 러 썬 허 다 한 증 인 들 이 있 으 니 모 든 무 거 운 것 과 엮 매 이 기 쉬 운 죄 를 벗 어 버 리 고 인 내 로 썬 우 리 앞 에 당 한 경 주 를 경 주 하 며

이말씀은 11장에서 언급한 구약성도들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말씀은 또한 이땅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나를 관망하고 있는 구약성도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말씀의 뜻은 구약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때에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할수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때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12:1** 이 러 므 로 우 리 에 게 구 름 같 이 돌 러 썬 허 다 한 증 인 들 이 있 으 니 모 든 무 거 운 것 과 엮 매 이 기 쉬 운 죄 를 벗 어 버 리 고 인 내 로 썬 우 리 앞 에 당 한 경 주 를 경 주 하 며

**12:2** 믿 음 의 주 요 또 은 전 케 하 시 는 이 인 예 수 를 바 라 보 자 저 는 그 앞 에 있 는 즐 거 움 을 위 하 여 십 자 가 를 참 으 사 부 끄 러 움 을 개 의 치 아 니 하 시 더 니 하 나 님 보 좌 우 편 에 앉 으 셨 느 니 라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중의 가장 좋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곳에 나타나 있듯이 이땅위의 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4:7 내 가 선 한 싸 움 을 싸 우 고 나 의 달 려 갈 길 을 마 치 고 믿 음 을 지 켜 으 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경주하나 상받는 자는 한사람밖에 없으니 그상을 받도록 열심히 경주하라” 했습니다. 디시말해서 전력을 다하여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림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앞에 놓여져있는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자 라는 뜻입니다.

헬라말을 보면 흥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라본다는 말이 헬라말에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적쳐다본다는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연구한다는 뜻이있고 또 하나는 바라보고 숙고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특수한 헬라 말을 여기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어느 다른곳에도 이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이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이와 찬사로써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예수를 주시 하나다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그 은혜를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12장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써 믿음을 나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너희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빌1:6)

나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끝을 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창조요 그리고 우리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도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되시고 마침도 되시는 것입니다.

**12:2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앞에 있는 즐거움**

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경주할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인 것입니다. 경주할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운 삶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세상에서는너 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하시니라(요16:33)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크리스찬의 특징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5:11)누구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까? 화평케하는자, 자비를 매꾸는자, 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왜내하면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이세상에서 외인들이니까요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할때에 세상과는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되고 그들고 하여금죄책감을 갖게하며 그들은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이 계속 더러운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더러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혐오를 느낍니다.

세상사람들이 더러운 농담을 할때에 그것에 장단을 맞추어서 크게 같이 폭소를 하는 대신에 당신은 “오 그것은 더러운 일이 구먼” 이라고 말할때에 그들은 그러한 말을 싫어하여 당장에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며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태5:11)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하였난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앞에 있는 기쁨을 보라보고..”라고 했습니다.

경주함에 있어서 이긴자 받는 대가는 승자에게 오는 영광과 보상인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인한 사망을 이기시고 죄에서 자유케하시며 죄를 용서해주시고 길 잃은 우리들을 구속하여 영생을 주실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40: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편 40:8)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행할때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을때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계획과 일치 할때 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의무로 지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아니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12;2)*

사실은 십자가는 그에게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때에 할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조금나아가사 열굴을 땅에대시고 엎드려기도하여가라사대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이 잔을내게서지나가게하옵소서그러나나의 원대로마옵시고아  
버지의 원대로하옵소서! 하시고”(마태29:39)

만일사람이 종교적으로 구원얻는 길이 있다면 선한일을 하거나 신실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수 있다면 이잔을 내게서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나 예수님을 그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12:하)*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일”

여기에 그의 생활에서 사랑과 선을 나타낸 한사람이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  
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치려하느냐?’”(요한 10:32)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였다. 눈먼 자를 고치고 앓은뱅이르 걷게하고 죽은자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무슨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라고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그러한 일때문이야니고... 네가 사람이 되어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돌로 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며 많은 선한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일 외에는 한일이 없는 사람을 가장 악한 행동을 한사람 가운데 하나로 희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최고의 가치로써 사랑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가장 중요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사람의 독소를 모두 받으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거역인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경주를 할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때에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닥아 오면 우리는 피곤하여 힘이빠질때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뺨박을 당할때에 피곤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쪽뺨을 치면우리도 같이 그사람의 뺨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의 행하신 정반대의 일을 생각해보라

12:3 너 회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 게 거역한 일을  
참 으 신 자 를 생 각 하 라

12:4 너 회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기를 그의 피를 흘리기 까지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운데 순교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말로써 뺨박을 당한자가 있거나실제로 육체적으로 뺨박을 경험한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중에 가족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육체적인 뺨박을 경험한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계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할때에 우리가 바른길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때에 부모가 훈계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부모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는 우리를 좋게 하기위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십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위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일학교 시절에 가졌던 생각이 다시 되살아 나서 나타난 현상이라 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쁜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 됩니다.

만일 네가 나쁜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네가 나쁜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나쁜짓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를 좋아 하신다.

나의 어린 손자의 경우와 같이 그손자가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빠 하나님이 나를 보고계시나요?”라고 물었다. 아빠는 묻기를 “왜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물었더니 “내가 나쁜일을 했거던요 그게 정말인가요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나요?” 라고 묻는 대답에 적은 말하기를 “그럼 사실이야 윌리엄.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눈을 뗄수가 없어”라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수갑을 채워 감옥에 집어넣으려하는 순경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서 그의 눈을 뗄수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나의 어린 손자들이 집에 오면 나는 그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의 눈을 뗄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마다 얼마나 이쁘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버릇없이 구는 것도 이쁩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그광경을 보고 계속 얼마나 귀엽나?라고 말합니다. 저것 보라!

어떨때는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할때는 우리집 아이들이라면 매를 칠것인데도 이제 손자들이 그런짓을 할때는 귀엽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주 버릇없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버릇없이 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할때에 훈계하십니다.

12: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을 잊 었 도 다 일 렸 으 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  
지 말라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이 니 라 하 었 으 니

12: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의 체찍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악한 일을 해도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주 염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속이 면서 살아도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당신이 잘못던 관계를 오랫동안 아무일 없이 지나왔다면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당신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도 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키지도 않는 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나쁜짓을 할때은 우리를 거저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잘못돈 행위를 찾아내어 체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조금씩 일하는 시간을 속여 카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나도 나의 일한 시간을 조금 속여도 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에 곧 일이 발각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고 아무일 없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때에 결코 아무일 없이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쁜짓을 할때는 반드시 들케게하십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짓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일 없이 지나갈지 모르나 당신은 아닙니다.

그래성 당신이 나쁜짓을 하다 들키면 바로 즐거워하며 “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는 구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체찍을 경히 여기지 않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체찍을 맞지않는 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12:9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2:10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하시느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의 좋은데로 훈계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많은 때에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집에 자녀들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훈계가 부모들의 편의상 실시되던지 아니면 그 규칙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워 집니다. 그 부모들이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때에 그들의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를 훈계하여 매를 칠때에 이것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 보다 나를 더욱 아프게 한다” 라는 말을 얼마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나는 그러한 말을 내가 실제로 아버지가 될때까지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에야 그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때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땅위의 부모들을 존경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것을 확신 합니다. 당신채찍을 맞을때에 이것은 실제로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매를 맞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가요?

나에게는 항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구나라는 감정빠지게 됩니다.

나는 징계를 받을때에 어둡 킁킁한 방구석에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그의 침실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다른 방에 모두 뭉여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들이 서로 앉아 모든 말소리들을 다들을 수있으나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나를 불러 매질을 할것입니다.

물론 그때 내가 고통을 질러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였구나 생각토록 하여 나를 쉽게 넘어갈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을 나가시고 문을 닫으면 나는 계속 그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침대에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 와서 내가 죽을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때린것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나?

나의 어린 동생이 내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슬피 울겠나 생각할때에 나는 더욱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심리학자가 있다면 내가 말한것으로 여러가지 재미있는 심리 분석을 할것이라 상상 합니다.

그곳에 한동안 누워있다가 이런생각들이 다지난후에는 다시금 평상시의 생활로 들어 가게 될것입니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 보니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여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 가서 보자 무슨 재미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저렇게 웃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금 나는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기 전에는 합세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나는 파이를 하나더 더달라고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파이를 두번째 먹기를 원했으나 죄책감 때문에 감히 하나 더달라고 말할수 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한부분이 아니 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책감에 사로 잡혀 있었고 아버지 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저녁먹은 후에 내가 너에게 할말이 있으니 우리는 나의 침실로 가는 거다”

이말을 듣고난 후에 음식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훈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금 한 가족의 일원이 되며 죄책감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채찍을 받는 순간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뻐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훈계 받은 후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 이얼마나 아름다운것입니까?

그것이 다지난후에는 죄책감이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들켰습니다. 이제 벌을 받고 나니 더이상 죄책감에 사로 잡힐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금 가족의 일원이 되어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노폴리 게임도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모든 가족행사 참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맞을 동안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계십니다.  
수궁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이며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쁜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훈계를 받은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됩니다.  
내속에 현재 하나님과가지고 있는 사권이 다시금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12: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가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중히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하는데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12:12...**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12: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2:13** 너희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으로 흥미 진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임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우리는 거룩함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좇는 것이 어떤 의상을 입음으로 외관상으로 거룩을 장식하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그룹으로 알려진 뭉임도있고 오순절적인 성결, 순례자의 성결 그리고 또 다른 성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은 여인들이 화자를 하지 않는 다던가 금으로 단자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옷을 입는 입성에 대한것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적절 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거룩함이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외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정한 외관상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거룩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들이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을 부인 한다 할찌라도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더럽고 불순할수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마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 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  
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 말  
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5;17-18)

거룩함은 사람의 옷으로 나타낼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때 올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때에 내가 계속해서 그의  
임재 안에서 행동함으로 모든 일에 어떤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을 외적으로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어렸을때에 성결한 교회에서 자라날때에 하지 말아야 사항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내가  
틴에이저였을때에 할수 있었던 일은 목으로 껴얇을 정도이며 쇼를 볼수도 없고 춤도 출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도 이런것들을 금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엄전한채 하며 스스로 의로운채 했던 것입니다. 오내하면 우리는 그러한  
음성적이고 흥척하고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외적면 만을 추구하는 바리세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실랄하게 책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에 대한 외적인 면을 추구하는 규칙이고 법규였습니다.

그들은 말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사이적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시를  
“너희들은 하루사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채로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세인들이 길거리에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하는 장면을 흔히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하루사리가 입으로 날라들어와서 목에걸려 있을때 그들은  
그것들을 토하여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살이를 피채먹었기 때문입니다. 피채먹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그 하루살이를 토하려고 왁왁 애쓰는 장면을 목격할수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잔과 대접의 걸은 깨끗이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3:26 소경된 바리새인 아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걸도 깨끗하리라 23: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 각자가 참된 거룩함을 갈망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 까 두려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 해야 합니다. 우리속의 음탕한 것을 외식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하는 우리 마음속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주신다"라고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15...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 까 두려워 하고

쓴 뿌리는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령속에 쓴 뿌리가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나쁜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당신의 몸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파괴하는 것입니다.

12: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 까 두려워 하라

에서는 광야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 배가 고프았습니다. 심히 굶주렸습니다. 그의 우아한 형제 야곱이 맛있는 진미의 팻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말하기를 "야 그 팻죽 좀 나에게 달라" 야곱은 말하기를 "너의 장자 명분과 바꾸자" "여보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럼 바꾸지."  
에서는 장자 명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핏죽 한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12:17 너희의 아는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거절 당했음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고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12:17...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회개 할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제로 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눈물로 추구한 것은 단지 축복

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 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장만하여 들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바비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러면 조금전에 들어왔던 자가 누구냐?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였느니라” 에서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야곱이었구면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였다” 에서는 말하기를 “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부터 눈물을 흘리면 축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축복을 너형제에게 다했으므로 할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써 축복을 구하였으나 아직 회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개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가원했던 것은 축복 자기에게 유익한것만 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없신 여기고 그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을 잃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종교섬기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가서 사십시요 아니요 나는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동반하는 축복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회개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저자는 율법아래있는히브리사람들에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언약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새언약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구약의 율법을애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12:18 너희의이른곳은만질만한불붙는산과혹운과혹암과폭풍과  
12:19 나팔소리와말하는소리가아니라그소리를듣는자들은더말씀하지아니  
하 시 기 를 구 하 였 으 니  
12:20 이는짐승이라도산에이르거든돌로침을당하리라하신명을저희가견디  
지 못 함 이 라  
12:21 그보이는바가이렇듯이무섭기로모세도이르되내가심히두렵고떨린다  
하였으나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읽어 봅시다.

- 19:14 모세가산에서내려백성에게이르러백성으로성결케하니그들이자기옷을빨더라
- 19:15 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예비하여제삼일을기다리고여인을가까이말라'하니라
- 19:16 제삼일아침에우뢰와번개와뽁뽁한구름이산위에있고나팔소리가심히크니진중모든백성이다떨더라
- 19:17 모세가하나님을맞으려고백성을거느리고진에서나오매그들이산기슭에섰더니
- 19:18 시내산에연기가자욱하니여호와께서불가운데서거기강림하심이라그연기가웅기점연기같이떠오르고온산이크게진동하며
- 19:19 나팔소리가점점커질때에모세가말한즉하나님이음성으로대답하시더라
- 19:20 여호와께서시내산곧그산꼭대기에강림하시고그리로모세를부르시니모세가올라가매
- 19:21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내려가서백성을신칙하라백성이돌파하고나여호와께로와서보려고하다가많이죽을까하노라
- 19:22 또여호와께가까이하는제사장들로그몸을성결히하게하라나여호와가그들을돌격할까하노라

여기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저자는 말하기를”너희들이 이른곳은 시내산과 같이 무섭고 그산에 손도 댈수 없었고 감히 가까이 접근할수 없는 곳이다.

그산은 연기와 불로 덮여있었고 천둥과 폭풍이 불었으며 흑암으로 덮여있었고 나팔소리가 났었다. 그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 자신도 떨었다”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와

**12: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모든 천케된 의인의 영들과

**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밋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들이 시내산에 갈수 없었다. 만일 그산에 갔다면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산 곧 시내산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이 있는곳 교회의 처음난자, 하나님께 중생한자,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이 예수께 와있다. 그래서

**12: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 좃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히브리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책을 소개하는 일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는 그의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는 멧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통해서 설정하신 더좋은 언약, 더좋은 길, 더 좋은 희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하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 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12:25**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 좃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지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거절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두세증인을 인하여 돌로 침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자를 배반하는 우리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12:26 그 때 에 는 그 소 리 가 땅 을 진 동 하 였 거 니 와 이 제 는 약 속 하 여 가 라 사 대 내 가 또 한 번 땅 만 아 니 라 하 늘 도 진 동 하 리 라 하 셴 느 니 라*

이제 무서운 천재지변이 우주에 내려질 것입니다. 성경의 몇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땅이 술취한자같이 천방지축 비틀거릴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뿔들이 지구상에 쏘나기 같이 떨어질 것이며 땅만 진동할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12:27 이 또 한 번 이 라 하 심 은 진 동 치 아 니 하 는 것 을 영 존 케 하 기 위 하 여 진 동 할 것 들 곧 만 든 것 들 의 변 동 될 것 을 나 타 내 심 이 니 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지구를 한번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실때에 그땅이 흔들렸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더 이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터인데 진동치 않는 것들은 영존하게 될 것이며 진도하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닥아올 무서운 천재지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하늘이 비큰소리로 떠나가며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겠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말했습니다.

이땅의 모든 채질이 진동될 모든 것은 진동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되지 않는 것만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만 한생명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 파괴될것 입 니 다.  
우주의 모든 물체가 어떤날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을 물질에만 둔다면 이물질이 사라질때에 당신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될것입니다.당신이 죽을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관의 전부가 당신 주위의 물질 세계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가치관을 영적 세계에 둔다면 그것은 진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세상의 체질이 불에 풀어 질때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는 질문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영적인 일에 두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이러한 멧세지를 싫어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멧세지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세상의 물질의 신들과 소유재산에 사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물질적인 것은 모두 파괴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협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멧세지를 듣기를 원치 않으나 이것은 사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번더 천지를 진동시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씀은 진동되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고 진동되지 않는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은혜를받자이로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2: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주 흥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앗시리아의 대군이 남방나라 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와서 포위하였을때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185,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룻밤에 하나의 천사가 대군을 전멸 시켰습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을 쳐다보니 185,000죽은군인들의 시체들만 늘려져 있었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도성에 사는 죄인들이 실제로 겹을 집어 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어떠한 일을 할수 있나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33: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자들이 떨며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  
리요 하도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란 그자체가 흥미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말이지만 자연은 불에서서히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조각의 쇠를 밖에다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쇠에 녹이 쏠기 시작 합니다.

이녹은 산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쇠가 산화 현상에 의해서 그기질이 서서히 불에타고 있으며 그쇠가 점점 쇠퇴 되어 결국은  
썩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질이 서서히 타서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물의 마지막 박은 못되 산화현상에 의해서 서서히 불타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페인트를 자주 칠해서 이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것으로 계속 대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화현상때문에 물질이 서서히  
불타서 모든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이란 흥미있는 물질인데 이불은 소멸할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불은 어떤물질을 영구적으로 변형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황동(구리 와 아연의 합금)을 불에대 넣어 열을 가하면 이것은 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에 의하여 더 연금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란 흥미있는 것입니다.

이불은 다른것들은 태우지만 어떤것들은 영구적인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을  
불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누가 하나님의 불을 피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대답은 아무도  
하나님의 불을 피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에게 그불이 무엇을  
할것인가? 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을 영원한것으로 변형시키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날  
당신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 히브리 13 장

히브리 13장을 마치면서

**13:1** 형 제 사 랑 하 기 를 계 속 하 고  
**13:2** 손님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  
니라

흥미있는 말입니다. 나는 그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내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 이분이 아마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본적은 전혀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적도 없고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천사를 맞았다는 소문들을 많이 듣는데 나는 그말들이 믿어지지않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다고 전혀 부인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사람으로 가장하여 나타날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13:3** 자기도 함께 갇힌것같이 갇힌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자를 생  
각하라

이러한 말씀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 라고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여러번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때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갇혀있을때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 했고 묶인 자들을 기억해줄것을 격려 했던  
것입니다

**13:3...**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자를 생각하라

그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고 했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사람이 만일 역경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함은 우리모두가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못하는데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당신들과 같이 선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 주의자라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는 좋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저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그렇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핍박을 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을 드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이 번역한 나의 설교를 듣고 갈보리 채플을 위해서 매일 기도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관리들의 눈을 피해 몰래 전달된 편지를 읽을때에 나의마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간혀있는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에 간혀 있는 자들을 기억해야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간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합니다.

철의 장막 배후에서 그리스도를믿은 믿음때문에핍박을 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몸이므로 하난가 고통당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 당하는 것입니다.

*13: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의 결속 안에서만 가깝고 긴밀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몸이 되어 살면서 아름다운 경험을 하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4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

는 자 들 을 하 나 님 이 심 판 하 시 리 라  
13: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 전서6: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것도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했습니다.

13:5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있는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일 당신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가 우리의 보급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결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13: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오나는 이말씀을 아주 좋아 합니다.“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 하리요”(롬8:31). 여호와와 는 나를 도우시는 자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것을 두려워 아니하노라

유다왕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때에 에티오피아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 했습니다. 수적으로 적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임하였을때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 여강한자와 약한자 사이에는 주 밖에도 와줄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 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역대하 14:11).

나는 이기도가 좋습니다. 이기도 내용에는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많은 군대가 있던지 아니면 없던지 상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사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와 의 이름이 더럽히게 되지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편이 되셔서 우리의 계획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이오니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자시요 나의 힘이시니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 하십시오.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  
말을 주의 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본 받으라

경건한 생활의 마지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을 고려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을 기억 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구절은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3:9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일을 강조하는 교리인 우리의 행위나 사람의 의로운  
행실에서가 아니라 은혜위에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에 기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휴버터 암스트롱과 같이 무슨 고기를 먹어야 하고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아니된다는 교리에 빠지면 안됩니다.

당신의 의가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하는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은혜위에 설립되며 외면적인 의식이나 고기 같은 것에 매여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일에 뻗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  
을 권 이 없 나 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서 불사름이니라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용할때에 그짐승의 사체를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사체를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태웠던 것입니다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기록케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안에서 케톨릭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기념하는 교회를 지은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시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이끌고 갔읍니다.

그래서 헤롯의 대문 건너편 약 한불려 떨어진 무덤의 정원 지역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자리라고 생각함이 더욱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메섹성문 밖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기록케 하려고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13: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말씀의 의미는 유대교의 영문밖이며 이스라엘의 율법의 밖이요 종교제도의 밖에 있음으로 그것들의 밖으로 나아가자

**13:13**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14**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것을 찾나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성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땅에는 영구적인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13:15**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께서 가져오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가 실증이 났다”

“히10:5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인 우리의 찬미의

<p>제사입니다.</p> <p>어린 영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죽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p> <p>하나님께 찬미를 보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p>
<p><b>13:16</b> 오 직 선 을 행 함 과 서 로 나 뉘 주 기 를 잊 지 말 라 이 같 은 제 사 는 하 나 님 이 기 뻐 하 시 느 니 라</p>
<p>이것은 필요한 자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p>
<p>이같은 제사는</p>
<p>우리가 드릴수 있는 다른 제사방법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p>
<p><b>13:17</b> 너 희 를 인 도 하 는 자 들 에 게 순 종 하 고 복 종 하 라</p>
<p>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p>
<p>저 희 는 너 희 영 혼 을 위 하 여 경 성 하 기 를 자 기 가 회 계 할 자 인 것 같 이 하 느 니 라 저 희 로 하 여 금 즐 거 움 으 로 이 것 을 하 게 하 고 근 심 으 로 하 게 말 라 그 령 지 않 으 면 너 희 에 게 유 익 이 없 느 니 라(13:16-17)</p>
<p>요한 기록하기를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말씀은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야기 일것입니다.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p>
<p><b>13:18</b> 우 리 를 위 하 여 기 도 하 라 우 리 가 모 든 일 에 선 하 게 행 하 려 하 므 로 우 리 에 게 선 한 양 심 이 있 는 줄 을 확 신 하 노 니 <b>13:19</b> 내 가 더 속 히 너 희 에 게 돌 아 가 기 를 위 하 여 너 희 기 도 함 을 더 욱 원 하 노 라</p>
<p>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위하여기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가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함으로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갈수 있을 것이다”</p>
<p><b>13:20</b> 양 의 큰 목 자 이 신 우 리 주 예 수 를 영 원 한 언 약 의 피 로 죽 은 자 가 운 데 서 이 끌 어 내 신 평 강 의 하 나 님 이 <b>13:21</b> 모 든 선 한 일 에 너 희 를 온 전 케 하 사 자 기 뜻 을 행 하 게 하 시 고 그 앞 에 즐 거 운 것 을 예 수 그 리 스 도 로 말 미 암 아 우 리 속 에 이 루 시 기 를 원 하 노 라 영 광 이 그 에 게 세 세 무 궁 토 록 있 을</p>



지어다! 아멘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축도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요한 10:11)

그는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심을 축복 합니다. 완전히란 말이 헬라말에서 완전히 성숙이란 뜻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성숙하기를 축원 합니다

**13: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3: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13: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13:24**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 게문안하라 이 달리야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편지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13:25**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들어가면 그는 우리를

야고보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저녁 이 두장에서 우리는 많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가서 이책을 다시 읽어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복습을 하고 귀면을 받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몸이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잊지 말고 도와 주워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권면 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진실로 시베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행위에 옮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믿음을 실편에 옮길때에 떠 하나님의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순종할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사랑안에 보존하시고 그의 화평으로 채워주셔서 이번주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와 동행할때에 그의 선하심의 풍성함이 당신의 심령과 생활속에 넘쳐 흘러나기를 기원 합니다.

우리의 뭇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육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때에 주님 안에서주님과 영적인 일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기원 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